

전효진 전주대 교수, 전북 산학연 신입 회장 취임

전주대학교 전효진 교수(의식산업학과)가 최근 전라북도 산학연협의회 신입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산학연협의회는 정부 관련 부처에 기업 정책 제안, 산학협력 내실화를 위한 산업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의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

전 교수는 “도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더불어 산학협력 교류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효진 교수는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중기부 자문위원, 전북 농생명연구협의체 식품분과위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병무청, 동원훈련 수송사고 감염병 대응 절차연습

전북지방병무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22일 동원훈련 예비군 수송사고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절차연습이 마련됐다.

이번 연습은 동원훈련 예비군 단체수송사고 및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숙달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연습에 참여한 직원들은 수송사고 및 중간집결지 감염병 대응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해 초동단계부터 사후처리 단계까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임무와 행동요령을 집중 연습했다.

특히 전주인산소방서와의 협업을 통한 연습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을 병행해 실제 응급상황에서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높이고자 했다.

관내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의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절차연습에 따라 직원들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태 기자

건강관리팀 전북지부, 어르신들께 배식 온정 나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본부장 김민수 이하 ‘건강 전북지부’는 덕진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건강 전북지부 임직원 및 건강사랑어머나봉사단은 복지관을 찾은 20여 명의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정성 어린 손길로 배식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건강은 어르신 위한 ‘반성질환, 건강생활습관’ 등 다양한 건강정보가 담긴 월간지 ‘건강소식’과 이상지혈증 식판관리 리플렛을 배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김민수 본부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익의료가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완산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기술 훈련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소방서 주차장에서 22일 현장대원 능력강화를 위한 ‘전기차 화재 진압기술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며 전기차 화재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전기차에 대한 기본 소양을 기르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진압기술 훈련’을 마련한 것이다.

훈련은 화재 대응 장비업체, 화재진압 전문화 훈련 지도관 소방시설 지도관을 비롯해 각 센터 화재진압대원이 참여했으며, 차량 주변에 수조장치를 설치, 침수 및 질식 소화단개로 덮는 연소확대 방지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의 주요 내용에는 전기차 특징 및 화재 특성 이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교육, 전기차 화재 진압방법, 전기차 구동방식에 따른 대응방법, 전기차 화재 상황 가경 시나리오 훈련 등이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상황대응 매뉴얼 및 화재 맞춤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현장대원의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민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임종은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

강임준 군산시장,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시민히어로’에 표창장 수여

군산시는 22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시민을 대표해 생명을 구한 의인(義人) 김윤하(38)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씨를 비롯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6일 점심시간 수송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주저없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쓰러진 남성의 의식을 되찾고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진 남성은 다음날 감사의 인사까지 전할 정도로 무사히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인(義人) 김씨는 “건실현장에서 작업 전 받았던 안전교육을 떠올리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몸이 바로 반응하였다.”며 “아직도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위급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해 귀한 생명을 살린 대단한 분이기에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다”, “간만에 훈훈한 뉴스에 마음이 뭉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태원사고 이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안전관련 교육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기자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지역내 소방대상물 자율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는 건축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계인 스스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 자율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시설을 조차해 정상 작동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시 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상물 관계자 대부분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대여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덕진구 금암·아중·전미·팔복 등 4개 안전센터)에 사전 연락해 장비 무료 확인 후 방문하면 대여가 된다.

여기에 덕진소방서는 대여와 함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 운영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 노경영 방호구조과장은 “관계인의 소방시설 점검 비용 부담 해소와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무상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비스 활용을 통해 화재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덕진소방서,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등 무상 대여

전주덕진소방서 노경영 방호구조과장은 “관계인의 소방시설 점검 비용 부담 해소와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무상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비스 활용을 통해 화재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장수 치매정신통합센터, 튀르키예 구호물품 기부

장수군치매정신통합센터 직원 일동은 튀르키예 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구호물품 2,000개를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현지에서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센터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약 2,000개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기부했다.

장수군치매정신통합센터 18명은 기부 손길을 모아 박스 포장 작업 후 구호물품을 인천공항으로 보냈으며, 팀원들은 “집을 잃어 추위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기부를 시작했”고 전했다.

박경임 치매정신통합센터장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며 “기부에 동참해 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며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치매정신통합센터는 기부 외에도 장수군민들의 치매관리, 정신건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체육시설 근무자 대상 친절서비스 특별교육 실시

진안군이 관내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날이 풀리면서 체육시설을 찾는 이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었다.

특히 진안국민체육센터 및 진안고尔夫연습장 문예체육회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체육지도자, 공무원 및 기간제 근무자 등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참석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교육은 친절서비스 영상 교육과 ‘친절한 서비스 직원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로 정상식 문화체육과장 강의, 주민응대요령 및 친절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함께 진행된 직원 의견 수렴 시간을 통해 외부 친절도는 물론 내부 직원들 간의 친절도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직원 간 경어쓰기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 및 채택돼 함께 실천을 다짐하기도 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은 “고객들에게 따뜻한 국민체육센터, 행복한 골프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향상 및 직원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와 골프 연습장은 정기등록한 회원들에게는 수영강습과 골프강습을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5월~7월까지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기전대, 지역인재양성 운영위 개최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22일 LINC사업단 회의실에서 2022학년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는 2022년 국고지원 사업 운영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및 포상휴가 지급, 2023년 새로운 홍보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양성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은 △2022년 산학협력단 국고지원사업 운영성과 평가의 건 △산학협력단 홍보인센티브 제도 계획(안) △사업 등급 평가 결과 및 수상에 따른 특별휴가 지급의 건 등이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도농상생형 로컬JOB센터운영사업(교용노동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창업진흥원) △진안군로컬JOB센터(전라북도) △커플링사업(전라북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덕현 단장은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제20대 이화자 회장 취임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제20대 회장으로 이화자 고창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21일 오후 수송문화관에서 열린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이·취임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임정호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화자 신임회장은 “여성단체의 초석을 닦아준 역대 회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창군 여성단체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에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화자 회장은 고창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장을 맡으며 재난방재와 지역사회 인정을 위해 앞장서는 봉사자로 활동해 왔다. /고창=김영식기자



LX공사 진안장수지사,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지사장 진철)가 지난 21일 장수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모금해 기탁했다.

지난 1월 30일 지사장으로 부임한 진철 지사장은 “국토정보공사는 국토정보의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며 “장수군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희식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장수군과 유대를 강화하고 함께 협력하고 발전해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제2회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동향연 주민자치위원회, ‘영화 상영’ 봉사

진안군 동향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심을보)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농한기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로 역사드라마 영화 ‘관상’을 상영했다.

동향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영화 상영은 평소 문화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작하게 됐으며, 영화관람에 대한 어르신들의 호기심과 주민들 소통의 시간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달에는 한파로 외부 출입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과 농번기 시작 전 농업인의 일상생활에 힘을 더해주는 자리로 80여명의 주민이 영화를 관람했다.

양수현 동향연장은 “추위에 움츠리고 계신 지역주민께 영화로 삶의 활력을 북돋아 드리고 주민들의 소외된 문화복지를 위해 애쓰는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